# 피부묘기증

피부묘기증은 두드러기의 일종으로,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두드러기로 분류된다. 우리나라 인구의 약 5% 정도에서 나타나고, 대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. 피부를 어느 정도 이상의 압력을 주어 긁거나 누르면, 그 부위에 국한되어 두드러기와 유사하게 가렵고 붉게 변하면서 부어 오른다. 그리하여 마치 피부에 글씨를 쓴 듯한 양상으로 보이게 된다. 경우에 따라서는 약한 자극에 의해서도 온몸의 피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, 가려워서 긁으면 더욱 심하게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.

## 원인

피부묘기증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. 하지만 갑상선 질환, 당뇨병, 감염증과 같은 전신 질환이나 임신, 폐경기, 약물, 스트레스 등에 의해 악화된다는 보고도 있다.

## 증상

피부묘기증은 단순히 피부의 부종과 발적만 나타나는 단순피부묘기증(simple dermographism)과 발진 부위에 가려움을 동반하는 증상성 피부묘기증(symptomatic dermographism)으로 나눌 수 있다.

## 진단

피부묘기증의 진단은 임상 증상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으며, 유발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.

## 검사

피부묘기증의 유발 검사는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다. 손톱이나 펜 등을 이용하여 적당한 압력으로 피부를 긁은 뒤 수분 동안 관찰하면 마치 글씨를 쓴 듯한 양상으로 긁힌 부위가 붉게 부어 오르는 것(발적과 팽진)을 관찰할 수 있다.

## 치료

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으며, 치료는 대개 증상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. 다른 두드러기와 마찬가지로 항히스타민제가 가장 중요한 약제이다. 피부묘기증이 발생하는 빈도와 정도에 따라 투여 용량을 조절하거나, 여러 가지 항히스타민제를 복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.

## 경과/합병증

피부묘기증은 가려움 이외의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,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.

# 예방방법

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다. 피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, 아주 작은 스침에 의해서도 피부묘기증은 발생할 수 있다.

# 생활 가이드

피부에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. 특히 가렵다고 긁으면 두드러기 반응이 더 심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. 또한, 조이는 옷이나 속옷, 과격한 운동과 같은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.

# 식이요법

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식이요법은 없지만, 특정 음식이나 약물 복용이 피부묘기증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. 술은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.

# 참고

- 네이버 건강

From:
http://obg.co.kr/doku/ - **OBG WiKi**

Permanent link:
**http://obg.co.kr/doku/doku.php?id=science:dermographism**

Last update: **2020/11/29 14:09**